

#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 창세기 1:1-2:3의 예로 -

김근주\* 김선종\*\* 김정훈\*\*\* 이상혁\*\*\*\* (가나다순)

## 1. 들어가는 말<sup>1)</sup>

### 1.1.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

칠십인역 구약성경, 이른바 칠십인경은 대략 주전 280년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늦게는 주후 2세기까지 이어지는 히브리어 및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 또는 그 어간에 본디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일컫는다. 이러한 그리스어 구약성경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증언대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으로부터 비롯된 위로부터의 동기에서 번역되었든지,<sup>2)</sup> 아니면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학교에서의 히브리 경전 교육을 위해<sup>3)</sup> 혹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예전적 필요를 위해 비롯되었든지,<sup>4)</sup> 당시 모국어보다는 국제어에 더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로

\*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 박사과정, 구약학

\*\*\* 독일 부퍼탈 신학대학교 박사과정, 구약학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 박사, 구약학

1) 본 논문은 공동 저자들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김근주{1.2.2 NETS; 1:4, 8, 12, 16, 20, 24; 2:1}, 김선종{1.1; 1.2.2. La Bible d'Alexandrie; 1:3, 7, 11, 15, 19, 23, 27, 31}, 김정훈{1.2.1., 1.2.2. LXXD; 1:2, 6, 10, 14, 18, 22, 26, 28; 2:3}, 이상혁{3; 1:1, 5, 9, 13, 17, 21, 25, 29; 2:2}. 공동저자들은 칠십인경 연구모임인 “칠십인경-한국(Septuagint-Korea)”에 속한 연구원들이다(<http://septuagint.co.kr>). 본 논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어 음역은 위 모임에 속한 이상 일 연구원의 그리스어 음역안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다.

2) S. Honigman, *The Septuagint and Homeric Scholarship in Alexandria: A Study in the Narrative of the Letter of Aristea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을 참고하라. 이에 대해, 사회 언어학적 측면에서 오경 칠십인경 번역자가 엘리트 그룹에 속한 전문 번역자들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산층의 민중 언어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위해서는, J. Joosten, “Le Milieu producteur du Pentateuque grec”, *Revue des études juives* 165 (2006), 349-361.

3) A. Pietersma, “A New Paradigm for Addressing Old Questions: The Relevance of the Interlinear Model for the Study of the Septuagint”, J. Cook ed., *Bible and Computer. The Stellenbosch AIBI-6 Conference* (Leyde, 2002), 337-364; A. van der Kooij, “The Origin and Purpose of Bible Translations in Ancient Judaism: Some Comments”, *Archif für Religionsgeschichte* 1 (1999), 204-214.

번역된 구약성경을 급속도로 자신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히브리어 및 아람어로부터 번역된 그리스어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다시 옮길 필요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연 성서신학에서 칠십인경이 어떠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와 같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구약성경의 경우에는 원어로 기록된 성경, 즉 히브리어 및 아람어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개신교에서는 그리스어로 쓰인 성경들이 ‘외경’의 자리로 밀려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회사의 배경과 함께, 구약성경이 본래 히브리어 및 아람어로 기록된 ‘사실’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구약성경 연구자들로 하여금 히브리 본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차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칠십인경을 비롯한 히브리어 본문 이외의 역본들은 본문비평 단계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재구성하기 위한 참고 본문 정도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보면, 칠십인경은 그 자체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칠십인경 본문을 통하여 히브리 본문이나 콤파 사본 이전의 구약성경 본문 발전 단계의 국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비록 단지 파편으로만 남아 있지만, 가장 오래된 칠십인경 사본은 주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The Cairo Papyrus Fouad 266, The Manchester Papyrus Greek 458 등), 완성본은 주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예컨대, Codex Vaticanus). 이러한 칠십인경 본문의 중요성은 히브리 본문이 표준화된 시대 이전에 이미 칠십인경 번역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도 밀받침 된다(가장 오래된 히브리 사본은 주후 9세기로 추정되는 카이로 게니자 사본이며, 이 또한 파편으로 존재한다).<sup>5)</sup>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BHS, BHQ 혹은 HUBP 등이 히브리어 레닌그라드나 알렙포 사본들을 중심으로 한 고문서본(diplomatic edition)을 구성하는 것과 달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옥스포드 히브리 성경(Oxford Hebrew Bible) 프로젝트가 신약의 네슬-알란트와 같은 방식의 절충본(eclectic edition)을 시도하는 것은 구약성경 사본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4)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동기에 대해서는 S. Jellicoe,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Clarendon, 1968), 47-58; 아래로부터의 생성과 위로부터의 파급이라는 관점에서 칠십인경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S. Kreuzer, “Entstehung und Publikation der Septuaginta im Horizont frühptolemäischer bildungs- und Kulturpolitik”, S. Kreuzer and J. Lesch ed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Studien zur Entstehung und Bedeutung der Griechischen Bibel*. Bd. 2., BWANT 161 (Stuttgart: Kohlhammer, 2004), 61-75를 참고하라.

5) 칠십인경의 역사, 본문, 번역 동기 등을 위해서는 M. Harl, G. Dorival, and O. Munnich,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1988); E. Tov,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Jerusalem: Simor, 1997<sup>2</sup>) 등을 참고하라.

칠십인경 본문이 가진 이러한 고대성과 더불어 칠십인경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유대 전쟁 이후 유대인이 폐기한 칠십인경이 오히려 초기 기독교인들의 성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신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된 칠십인경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넘어, 칠십인경이 기독교의 정경인 신약성경의 중요한 신학 사상을 형성한 기초 신학 용어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칠십인경 그리스어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약 신학의 핵심 용어들인 ‘사랑’(아가페, ἀγάπη), ‘계약’(디아테케, διαθήκη), ‘그리스도’(크리스토스, χριστός) 등은 사실 히브리어의 ‘사랑’(헤세드, חֶסֶד), ‘계약’(브리트, בְּרִית), ‘메시아’(마쉬아흐, מָשִׁיחַ)와는 다른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sup>6)</sup> 이처럼 칠십인경의 언어가 신약 용어에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다면, 반대로 칠십인경의 그리스어 번역문이 히브리 본문의 현대어 번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예수님이 제시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토라의 계명(레 19:18)은 신약 성경에 모두 7회 나타나고 있는데(마 19:19; 22:39; 막 12:31; 눅 10:27; 롬 13:9; 갈 5:14; 약 2:8), 이들 신약의 구절들은 모두 칠십인경의 번역문을 그대로 따른다. 레위기의 이러한 구절은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에서의 ‘네 자신과 같이’에 해당하는 “카모카(קָמוּקָא)”를 부사적으로가 아니라 형용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너와 같은(처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너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준 반면,<sup>7)</sup> 칠십인경 번역자는 “카모카”를 “호스 세아우똘(ὡς σεαυτόν)”으로 번역하고, 또 신약의 저자들이 이의 없이 칠십인경 번역자의 번역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늘날의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본 구절에 대해 히브리 구절이 뜻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가능성들에 대한 고려 없이 ‘너와 같이 사랑하라’를 받아들이다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구약 본문 구문이, 그리스어로 옮겨지고 신약 성경에 받아들여짐으로써 히브리 구약 본문의 번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칠십인경 및 신약에서의 그리스어 용법이 비단 구문론 및 번역 기법의 문제를 넘어, 신학의 문제에게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레위기 19:34는 19:18과 동일한 구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이 이스라엘 동족이 아닌 거류민으로서, 칠십인경 번역자는 이 역시 “호스 세아우똘”으로 번역함으로써 다른 풍성한 해석의 여지를 닫아 버린다.

6) J. Joosten, “The Ingredients of New Testament Greek”, *Analecta Bruxellensia* 10 (2005), 59 참조.

7) 최근 J. M. Vincent, “« Tu aimeras ton prochain comme toi-même»? LV 19,18b dans son contexte”, *ETR* 81 (2006), 95-113도 이러한 번역을 옹호한다.

우리는 이처럼 칠십인경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및 신약성경에 끼친 영향과 더불어, 고대 그리스 일반 문명에 끼친 칠십인경의 영향 등 일반 문화사 연구를 위한 칠십인경 번역의 필요성도 역설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신학의 영역으로 제한시켜 생각할 때,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사상적 전거를 제공하고 있는 칠십인경이, 그 번역이 완료된 지 2000년 가까이 흐른 오늘에 와서 까지도 현대어로 번역되지 않았거나 이제야 번역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도 드물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의 칠십인경 연구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들에게만 제한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칠십인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칠십인경이 전문 연구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 역시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 음미해야 한다. 더구나 『개역』 성경에 대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유일하게’ 영감된 번역으로까지 상승시키려는 우리 교회의 암묵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더더욱 칠십인경 한글 번역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초대 교회의 신앙이 우리가 오늘 지닌 우리말 『개역』 성경이 따르고 있는 마소라 본문의 전통을 따른다기보다는 칠십인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점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칠십인경의 신학 및 신앙적 복권(復權)을 절실히 요청한다. 이 점에서 역시 이 글이 시도하는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시도함에 있어서 본 필자들은 이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다루려고 한다. 첫 번째 글은 이미 언급한 번역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번역에 앞서 이를 위한 기본적 논의를 짚어두려고 하며, 두 번째 글에서 이러한 논의들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번역을 시도할 것이다.

## 1.2.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 시안의 특성

### 1.2.1. 번역 대본

오늘날 우리가 칠십인경 창세기 우리말 번역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칠십인경 비평본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1) 캠브리지 대편집본,<sup>9)</sup> (2) 랄

8) 이를 위해서는 J. Joosten and Ph. Le Moigne eds., *L'Apport de la Septante aux Études sur l'Antiquité : Actes du colloque de Strasbourg 8-9 novembre 2002*, Lectio Divina (Paris: Cerf, 2005) 를 참조하라.

9) A. E. Brooke and N. McLean,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with a Critical Apparatus Containing the Variants of the Chief Ancient Authorities for the Text of the Septuagint I. The Octateuch. Part I. Gen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이하 B-M으로 줄여 씀.

프스 소비평본,<sup>10)</sup> (3) 괴팅엔 대비평편집본.<sup>11)</sup>

(1) 이 가운데 먼저 캠브리지 대편집본은 바티칸 사본(Cod. B; 주후 4세기)을 주대본으로 하는 고문서본이다.<sup>12)</sup> 비록 이 편집본이 방대한 비평적 각주를 제공하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이미 출간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어김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창세기의 경우에는 바티칸 사본이 46장 28절 “까트 헤로온(καθ’ Ἡρώων)”까지의 본문이 소실되어<sup>13)</sup> 캠브리지 대편집본이 이 부분을 알렉산드리아 사본(Cod. A; 주후 5세기)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이미 주지하다시피 핵사플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후대의 본문으로 여겨지므로 본문비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창세기의 경우 캠브리지 대편집본은 사실상 더 이상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에 반해 괴팅엔의 전통은 비평 편집본(critical edition)이다.<sup>14)</sup> 즉, 편집자가 필사본들의 증거에 근거해서 본문비평을 거친 뒤 “원-칠십인경 본문”(Ur-LXX; Old Greek)으로 여겨지는 본문을 편집한다.

(2) 랄프스(A. Rahlfs)의 소비평본의 경우, 대표적인 대문자 사본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시내산 사본(Cod. S, 3세기경)을 중심으로 본문비평을 하였다.<sup>15)</sup> 비록 랄프스의 탁월한 본문비평의 능력이 돋보이는 비평본이기

10) A. Rahlfs,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35;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랄프스의 이 비평본은 한 하르트가 오타 및 구두점 오류들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최근 새로 출간하였다: A. Rahlfs (rev. R. Hanhart),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이하 LXX-Ra로 줄여 씀

11) J. W. Wevers, ed.,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I.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이하 *Genesis*, LXX-Gö로 줄여 씀.

12) 이에 관해서는 B-M, I-1, i.을 보라. 편집자는 여기서, “재구성된 진본”(a reconstructed or ‘true’ text in this edition)을 제공하는 어려움을 감지하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성본인 바티칸 사본을 주 대본으로 하여 그 빈자리를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다른 대문자 사본으로 메꾸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3) 이에 바티칸 사본은 소실된 창세기의 대부분을 15세기에 필사된 소문자 사본으로 대치하고 있다. 바티칸 사본의 특징은, A. Rahlfs,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MSU II*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14), 258-260; 이 책의 개정증보판인 D. Fraenkel, Bd. I, 1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Supplemen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337-344를 참조하라.

14) 괴팅엔 비평편집본의 역사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Hanhart and J. W. Wevers, *Das Göttinger Setpuaginta-Unternehmen. Festschrift für Joseph Ziegler zum 75.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15)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XX-Ra, L: “Die vorliegende Handausgabe der Septuaginta

는 하나, 깊은 본문비평 논의를 하기에는 그 자료적 가치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소문자 사본의 필사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랄프스의 비평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가령, 창세기의 경우 바티칸 사본은 소실되었지만,<sup>16)</sup> 이 사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소문자 사본들은 더러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원-칠십인경 본문의 전통을 반영하곤 하기 때문이다.<sup>17)</sup>

(3) 위버스(J. W. Wevers)가 편집한 괴팅엔 대비평본은 캠브리지 대편집본이 제공하였던 방대한 본문비평 자료의 장점과 랄프스 비평본을 비롯한 괴팅엔 칠십인경 연구소의 본문비평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비평편집본은 대문자 사본은 물론 소문자 사본, 칠십인경의 이차 번역들, 교부 인용, 헥사플라 자료 등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본문비평자료들을 모두 망라한다. 또한 캠브리지 대편집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 괴팅엔 대비평 편집본은 필사본들의 본문 특징과 필사 전통을 고찰하여 그룹별로 묶어서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괴팅엔 대비평 편집본을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과 주석의 대본으로 삼는다. 또한 향후 칠십인경 전체에 대한 번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괴팅엔 대비평본을 대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거의 대부분의 책이 편집자가 정해져 있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을 도모하고 있으니<sup>18)</sup> 굳이 이전의 부족한 비평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sup>19)</sup>

gründet sich hauptsächlich auf die drei berühmten, ursprünglich das ganze A. und N. T. enthaltenden Bibelhss. B S A.” 이 세 대문자 사본들을 중심으로 본문비평을 한 랄프스는 비평적 각주에 오리겐의 헥사플라와 루키안 개정본의 증거들을 기입하였다.

16) 단, 랄프스는 창세기의 경우 바티칸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후 3세기의 파피루스 단편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보기: 창 4:11; 7:6, 8, 17 등). 이 파피루스는 랄프스의 필사본 목록에서 911로 번호가 매겨졌고, 창세기 1:16-35:8의 본문이 단편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파피루스에 대한 설명으로는 Fraenkel,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376-382를 보라. 그리고 6세기의 대문자 사본인 Codex Coislianus (M)도 더러 사용하였다(보기: 창 5:24; 6:2, 7; 38:17 등). 하지만, 파피루스 911은 위버스의 관찰에 의하면 헥사플라의 영향을 받은 본문이며(J. W. Wevers, *The History of the Greek Genesis*. MSU X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220-222), Codex M은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여러 본문 전통들이 혼합된 상태이다. 이 사실에서 대문자 사본만으로 창세기 본문 편집을 하면서 랄프스가 겪었을 고통을 엿볼 수 있다.

17) 예컨대, 아래 1장 30절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에게는”의 번역에 대한 해설을 보라.

18) 괴팅엔 칠십인경 연구소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라:

<http://www.septuaginta-unternehmen.gwdg.de/Organisation.htm>

19)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 대본의 문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해 보라: 김정훈, “성서학 서평-칠십인역 창세기. 정태현, 강선남 역주, 왜관, 2006”, 「성서마당」 신창간 7호 (2006), 87-95.

### 1.2.2.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칠십인경 번역 프로젝트들에 대한 검토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이 주를 이루는 칠십인경을 다시금 재번역하려는 시도는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미 주후 2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라틴어역(Vetus Latina)을 비롯하여, 제롬의 불가타,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고대 에티오피아어, 시리아어 등 초기 기독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이차 번역들(Tochterübersetzungen)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도 칠십인경의 번역은 세계 각국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영미권,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일본 등). 이들 가운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의 예를 들어 그 특징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sup>20)</sup>

먼저, 영어 번역(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TS)을 살펴보자.<sup>21)</sup>

칠십인경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영어 번역의 시도는 예상외로 적다. 1808년 톰슨(C. Thompson)의 번역<sup>22)</sup>과 1844년 브렌튼(L. C. L. Brenton)의 번역<sup>23)</sup>이 전부이다. 브렌튼의 번역이 이제까지 칠십인경의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영어 번역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바이블웍스(BibleWorks) 역시 가장 최신 버전(7.0)까지 여전히 브렌튼의 번역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역들 이후 칠십인경 연구의 진전은 눈부실 정도이며, 무엇보다도 이상의 두 번역은 하나의 사본에 근거한 번역(diplomatic edition)이기에 피팅엔 비평본에 근거한 새로운 영어 번역의 요청은 절실하였고, 칠십인경 연구와 연관된 국제적 기관인 IOSCS(International

20) 최근에는 벨기에 루븐(Leuven)의 가톨릭 대학 신학부 칠십인경 및 본문비평 연구소(Centre for Septuagint Studies and Textual Criticism) 주최로, 이 세 프로젝트를 주도해 가는 학자들이 모여 “Specialists' Symposium on the Septuagint Translation”(2006년 12월 4-6일)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서로의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토의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된 것은, “칠십인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다. 칠십인경 영어 번역 프로젝트의 경우, “대조 성경(interlinear version)”이라는 모토(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NETS 소개를 보라)는 칠십인경이 히브리어로부터 생성된 본문(text as produced)이라는 견지에서 비롯되었다. 그에 반해, 칠십인경 불어 번역 프로젝트나 독일어 번역프로젝트(그리고 최근 페르난데즈 마르코스[N. Fernández Marcos]를 중심으로 시작된 스페인어 번역 프로젝트) 등은 서로 다소 입장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칠십인경이 단순히 히브리어 대본(Volage)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초대 기독교인,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어권 독자들에게 의해 하나의 성경 내지 헬라 문학 작품으로서 수용된 본문(text as received)이라는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21) 더 자세한 소개에 대해 NETS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ccat.sas.upenn.edu/nets/>

22) C. Thompson,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the New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4 vols. (Chicago: A.T.L.A., 1808<sup>4</sup>).

23) L. C. L. Brenton,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According to the Vatican Text,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Principal Various Readings of the Alexandrine Copy, and A Table of Comparative Chronology*, 2 vols. (London: Samuel Bagster & Sons, 1844).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NETS(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Old Greek Translations Traditionally Included under that Title)는 그 당연한 응답이었다.

NETS는 번역의 대본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현재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the best available editions) 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따라 첫 출간된 시편 번역은 피팅엔 대비평본에 근거하였다. 아울러, 칠십인경과 같은 번역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주된 독자층을 “성서에 대해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전제하고 이에 어울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NETS는 칠십인경이 한때 독립적으로 존재한 시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본이므로, 독자들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대조 성경(interlinear version)”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로 인해 칠십인경의 그리스어는 그리스어의 옷을 입었지만 히브리어의 영향을 반영한 특이한 그리스어를 구현하고 있으며, 가능한 히브리어 대본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NETS는 이러한 “대조 성경”이라는 틀에 근거하여, 새로운 영어 번역 역시 오늘날의 히브리어 성서를 반영하고 있는 영어 번역에 대한 대조 성경으로 기능할 것을 목표로한다. 그래서 NETS는 마소라 본문에 대한 여러 영어 번역들을 검토하면서 NRSV를 선정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영어 번역의 기준도 NRSV에 두고 있다. 즉, 가능한 NRSV의 용어와 표현들을 따르면서 칠십인경을 옮긴다. 그래서 NRSV 사용에 대한 NETS의 원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가능한 보존하라.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 곳에서는 바꾸라”이다. 하지만 NETS가 표명한 바 “대조 성경(interlinear version)”으로서의 특성화는 칠십인경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자칫 번역문이, 기본이 되는 NRSV의 영향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어의 정확한 의미 전달에 제한을 받을 우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 역시 인정해야 한다.<sup>24)</sup>

2000년에 시편이 출간되었고,<sup>25)</sup> 현재 계속해서 구약 전권에 걸쳐 작업이 진행 중이며, NETS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고 있다.

둘째로, 프랑스어 번역(La Bible d’Alexandrie)을 살펴보자.

1981년 파리 4대학(파리-소르본느)의 후기 헬라문학 교수 할(M. Harl)의 주도

24) NETS가 취한 번역 원칙에 대한 평가로는, N. F. Marcos, “Reaction to the Panel on Modern Translations”, B.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SCS 51 (Atlanta: Scholars Press, 2001), 233-240; 특히 233-237를 참고하라.

25) A. Pietersma, *The Psalm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Old Greek Translations Traditionally Included under that Titl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로 시작한 칠십인경 프랑스어 번역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성경을 번역하였다: 창세기(1986), 레위기(1988), 출애굽기(1989), 신명기(1992), 민수기(1994), 여호수아(1996), 사무엘상(1997), 사사기(1997), 요엘, 오바다,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1999), 잠언(2000), 호세아(2002), 전도서(2002), 바룩, 애가, 예레미야의 편지(2005).

우선 번역 대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괴팅엔 대비평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경우 원-칠십인경(Ur-LXX; Old Greek) 본문 재구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칠십인경이 실제적으로 통용된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팅엔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경우 자칫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다.<sup>26)</sup>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그리스어 언어학자,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 학자, 고대 기독교 교회사가(교부사가), 사본학자, 성서학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칠십인경이 신학, 문학, 역사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의미 및 영향을 밝히려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책은 서론을 통하여 칠십인경의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언어 및 신학적 특징 및 독자적인 책으로서의 구조를 밝히고 있고, 각 구절에 대한 해설을 통해 그리스어 번역문의 구문, 히브리 본문과의 이본, 다른 칠십인경 성경 및 당대 유대교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병행 구문, 신약 성경 및 기독교회사에 나타난 칠십인경의 영향 등을 밝히고 있는, 칠십인경에 대한 번역 및 주석서라 말할 수 있다. 칠십인경 프랑스어 번역본의 제목이 ‘알렉산드리아 성경’이라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이 번역본은 칠십인경이 ‘성경’임에 주목하여 칠십인경 번역자들, 그리고 교부들이 각각 그들이 지니고 있던 히브리 성경 및 칠십인경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어 번역 프로젝트는 칠십인경 본문을 통한 히브리 본문 재구성의 문제에는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독일어 번역(Septuaginta Deutsch: LXXD)을 살펴보자.

부퍼탈 신학대학교(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의 마르틴 카러(Martin Karrer) 교수와 자르브뤼켄(Saarbrücken) 대학교의 볼프강 크라우스(Wolfgang Kraus) 교수가 발안하여 1999년에 시작하여 2005년에 실제적인 번역 작업을 마치고, 독일성서공회(Deutsche Bibelgesellschaft)에서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프로젝트<sup>27)</sup>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칠십인경을 번역하였다:

“칠십인경의 번역은 문헌학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

26) 프랑스 칠십인경 번역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http://septante.editionsducerf.fr/>를 참조하라.

27) M. Karrer and W. Kraus, (Hg.), *Septuaginta Deutsch*. Bd. 1: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Bd. 2: Erläuterungen zum griechischen Alten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근간).

야 하며, 학문적인 관점에서도 명료하여야 한다.”<sup>28)</sup>

이 원칙은 무엇보다도 칠십인경이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문헌으로서 수용되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목표는 이 프로젝트가 상정한 독자층도 전제되어 있다.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은 그 독자를 칠십인경과 헬라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까지 칠십인경을 정경으로 쓰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독자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전제와 목표를 위해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은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두 권으로 나뉜다. 1권은 그야말로 칠십인경의 독일어 번역이다. 여기에서는 비평 각주를 최소화하고(한 쪽의 10%를 넘지 않는다!) 원어를 배제하여 읽는 이들을 위한 실용성을 도모하였다. 2권은 주해서로 여기에서는 본문비평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원어에 근거해서 제시된다. 둘째, 번역 대본으로는 대체적으로 괴팅엔 대비평본을 주대본으로 하였으며, 괴팅엔 대비평본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부분은 랄프스의 소비평본과 더러는 스페인에서 발간된 안디옥 본문 비평본<sup>29)</sup>을 병행 대본으로 삼았다(가령, 삼하 10-왕상 2:11; 왕상 22-왕하 25). 셋째, 번역 본문에는 이탤릭체 또는 몇 가지 기호로써 마소라 본문과의 차이, 괴팅엔 비평본과 랄프스 비평본 사이의 차이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십 년이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이기에 물론 한계도 없지 않다. 신약학자들과 구약학자들을 비롯해서 그리스어 및 언어학 전문가 등 70명 이상의 번역자가 참여하여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통일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제한된 분량 안에서 비평 각주 작업을 하다 보니 비평의 깊이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칠십인경 번역 프로젝트 역사상 처음으로 완결되어 출간되는 칠십인경 번역이라는 점, 실용성에 초점이 잘 맞추어졌다는 점, 그리고 신약학자들과 언어학자, 구약학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8) 이에 관해, S. Kreuzer, “A Germ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BIOSCS* 34 (2001), 40-45와 이 글의 우리말 번역, 김정훈,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 프로젝트”, 『성서마당』 59 (2003), 18-22를 참조하라. 또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로는, W. Kraus, “Hebräische Wahrheit und Griechische Übersetzung - Überlegungen zum Übersetzungsprojekt Septuaginta-deutsch (LXX.D)”, *ThLZ* 129 (2004) 9, 989-1007와 W. Kraus, “Contemporary Translations of the Septuagint: Problems and Perspectives”, W. Kraus u. a. (Hg.), *Septuagint Research -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the Greek Jewish Scriptures*. SCS 53 (Atlanta: Scholars Press, 2006), 63-83을 참조해 볼 수 있다.

29) N. Fernández Marcos und J. R. Busto Saiz,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이외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톨릭 성서학 연구소인 “한님성서연구소”에서 칠십인경 창세기의 우리말 번역이 출간되었지만, 이는 번역 대본 선정이나 번역 관주, 책의 구성에 있어서 여러 아쉬움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sup>30)</sup>

## 2.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칠십인경 서구의 현대어 번역 프로젝트들과 비교해 볼 때,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시안”은 어떤 특징은 결국 “무엇으로서의” 칠십인경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물론 칠십인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공히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칠십인경의 신학적 신앙적 복권을 도모하고자 칠십인경을 생성과 수용, 그리고 재수용의 측면을 아우르려는 우리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주요어>(Keyword)

칠십인경, 한글 번역, 창세기, 헬레니즘 유대주의, 본문비평.

Septuagint, Korean Translation, Genesis, Hellenism Judaism, Textual Criticism.

### <참고문헌>

Brenton, L. C. L.,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According to the Vatican Text,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Principal Various Readings of the Alexandrine Copy, and A Table of Comparative Chronology*. 2. London, 1844.

Brooke, A. E. and McLean, N.,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 uncial Manuscripts; with a critical Apparatus containing the Variants of the Chief Ancient Authorities*

30)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평가는 앞의 각주 19)에서 언급된 김정훈의 글을 참조하라.

- for the Text of the Septuagint. Volume I. The Octateuch. Part I. Gen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B-M).
- Elliger, K and Rudolph, W.,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
- Fernández Marcos, N. and Busto Saiz, J. R.,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 Field, F.,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1, Oxford: 1867; reprinted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64.
- Harl, M., *La Genèse*, La Bible d'Alexandrie I, Paris: Cerf, 1986.
- Karrer, M. and Kraus, W., eds., *Septuaginta Deutsch. Bd. 1: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Bd. 2: Erläuterungen zum griechischen Alten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근간.
- Wevers, J. W., eds.,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I.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LXX-Gö).
- Rahlfs, A., *Septuaginta, I Genes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6.
- Rahlfs, A.,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35;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LXX-Ra).
- Rahlfs, A., (rev. R. Hanhart),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Thompson, C.,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the New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4vols. Philadelphia, 1808.
- 강선남 편역, 『칠십인역 그리스어 문법』,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06.
- 김정훈, “성서학 서평-칠십인역 창세기. 정태현, 강선남 역주, 왜관, 2006”, 「성서 마당」 신창간 7호 (2006), 87-95.
- 정태현 강선남 역주, 『칠십인역 창세기』,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Alexandre, M., *Le commencement du livre Genèse I-V, Christianisme Antique 3*, Paris: Beauchesne, 1988.
- Bailly, A., *Dictionnaire Grec-Français*, Paris: Hachette, 1894, 1963<sup>2</sup>.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T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sup>18</sup>.
- Brown, W. P., *Structure, Role, and Ideology in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Genesis 1:1-2:3*, SBLDS 132,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Conybeare, F. C. and Stock, G., *A Grammar of Septuagint Greek*,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0.
- Fernández Marcos, N., “Reaction to the Panel on Modern Translations”, Bernard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SCS 51, Atlanta: Scholars Press, 2001, 233-240
- Fraenkel, D.,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Bd. I,1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Septuaginta Vetus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Supplementum*,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2004.
- Gesenius, W. (rev. Kautzsch, E.), *Hebräische Grammatik*, Hildesheim; Zürich; New York: Georg Olms Verlag, 1995<sup>28</sup>, E. A. Cowley, trans.,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10<sup>2</sup> (=GKC).
- Hanhart, R. and Wevers, J. W., *Das Göttinger Setpuaginta-Unternehmen. Festschrift für Joseph Ziegler zum 75.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77.
- Harl, M., Dorival, G. and Munnich, O.,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1988.
- Hatch, E. and Redpath, H. A.,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8<sup>2</sup>; org., Clarendon Press 1897 (=HR).
- Hendel, R. S. *The Text of Genesis 1-11. Textual Studies and Critical E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Jellicoe, S.,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Clarendon, 1968.
- Joosten, J., “The Ingredients of New Testament Greek”, *Analecta Bruxellensia* 10 (2005), 56-69.
- Joosten, J., “Le Milieu producteur du Pentateuque grec”, *Revue des études juives*

165 (2006), 349-361.

Joosten J., et Le Moigne Ph. éds., *L'Apport de la Septante aux Études sur l'Antiquité: Actes du colloque de Strasbourg 8-9 novembre 2002*, Lectio Divina, Paris: Cerf, 2005.

Koehler, L. and 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2. Leiden; Boston: Brill, 2004.

van der Kooij, A., "The Origin and Purpose of Bible Translations in Ancient Judaism: Some Comments", *Archif für Religionsgeschichte* 1 (1999), 204-214.

Kraus, W., "Hebräische Wahrheit und Griechische Übersetzung - Überlegungen zum Übersetzungsprojekt Septuaginta-deutsch (LXX.D)", *ThLZ* 129 (2004) 9, 989-1007.

Kraus, W., "Contemporary Translations of the Septuagint: Problems and Perspectives", W. Kraus u. a., eds., *Septuagint Research-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the Greek Jewish Scriptures*, SCS 53, Atlanta: Scholars Press, 2006, 63-83.

Kreuzer, S., "A Germ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BIOSCS* 34 (2001), 40-45; 김정훈 역,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 프로젝트", 「성서마당」 59 (2003), 18-22.

Kreuzer, S., "Entstehung und Publikation der Septuagint am Horizont frühptolemäischer bildungs- und Kulturpolitik", Kreuzer, S. and Lesch, J., ed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Studien zur Entstehung und Bedeutung der Griechischen Bibel*. Bd. 2., BWANT 161 (Stuttgart: Kohlhammer, 2004), 61-75.

Liddell, H. G. and Scott, G. (revised by H.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843; 1996<sup>9</sup> (=LSJ).

Muraoka, T.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8.

Pape, W., *Griechisch-Deutsches Hanwörterbuch*, Bd. 2. Graz: Akademie Druck- u. Verlagsanstalt, 1954<sup>3</sup> (=Pape).

Pietersma, A., *The Psalm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Old Greek Translations Traditionally Included under that Titl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ietersma, A., "A New Paradigm for Addressing Old Questions: The Relevance of

the Interlinear Model for the Study of the Septuagint”, J. Cook ed., *Bible and Computer. The Stellenbosch AIBI-6 Conference* (Leyde, 2002), 337-364

Rahlfs, A.,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MSU II, Weidmannsche Buchhandlung, 1914.

Reider, J., *An Index to Aquila*, SVT XII, Leiden: Brill, 1966.

Thackeray, H. St. J.,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Tov, E.,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Jerusalem: Simor, 1997<sup>2</sup>.

Vincent, J. M., “« Tu aimeras ton prochain comme toi-même » ? LV 19,18b dans son contexte”, *ETR* 81 (2006), 95-113.

Westermann, K., *Genesis 1-3*. BK I 1,1. Neukirchen-Vluyn, 1994.

Wevers, J. W., *The History of the Greek Genesis*. MSU XI,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74.

Wevers, J. W., *Notes on the Greek Text of Genesis*, Atlanta: Scholars Press, 1993.

<Abstract>

**Study for Kore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1:  
Genesis 1:1-2:3**

Prof. Keun-Joo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r. Sun-Jong Kim (Marc Bloch University in Strasbourg)

Mr. Jong-Hoon Kim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

Dr. Sang-Hyuk, Woo (Marc Bloch University in Strasbourg)

The Septuagint (LXX) has been so far regarded only as an ancient-at best, one of the most important- witness for clarifying the Masoretic Text (MT) so it tends not to attract public attention which it deserves. As a matter of fact, the study of LXX has been limited to specialized scholars. But closer considerations on the Old Greek translation shows us that it occupies a very significant position at least in two aspects: LXX reflects a pre-Masoretic ancient Hebrew text, and LXX was read as “the” Old Testament for the first Christian church for centuries. Based upon the above significance, LXX should be circulated and meditated not only in the sphere of specialized students, but also among ordinary Christians, especially among those who seem to deal with the *Korean Revised Version* (KRV) as a kind of “the inspired version of the Bible”. This paper is the first step to introduce LXX under this background, and translates Genesis 1:1-2:3 keeping, if possible, the words in KRV to let the readers find what differs from KRV. The translation consists of two sections: translation proper, and its critical apparatus to show and the difference between MT and LXX, to explain the variants among other versions.